

안전한 전주푸드, 학교급식에 공급

시, 내달 1일부터 88개 초·중·고교에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공급... 10월 이후 100개 이상 확대

전주시 농민들이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인 전주푸드가 학교급식으로 공급된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전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로 지정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주시 88개 초·중·고교에 전주에서 생산되고 한층 강화된 잔류농약 검사 등을 거친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 88개 초·중·고교에 재학생인 학생 5만3433명은 전주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로 만든 안전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주시는 전주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도내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농산물을 우선 확보하고, 친환경인증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시료를 채취해 잔류농약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식품안전성 감증을 거친 식자재만 일선학교에 공급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까지 총 88개 학교와 학교급식지원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일선학교의 기존 식자재 계약이 끝나는 10월 이후에는 전주푸드 학교급식 공급학교가 1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일선학교의 급식 식자재 계약이 8~9월 2달씩 묶어 이뤄진 만큼,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학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학교급식



방치 돼 있는 페어선 30일 새만금 개발 사업 지역인 김제시(새만금방수제 만경7공구·심포항·민경을 화포리) 일부 구간을 돌아다녀본 결과 공원은 잡초밭으로 변해 있었고, 바다 위에는 페어선이 흉물스럽게 방치 돼 있었다.

으로 공급되는 전주푸드에 대해서는 식품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자체적으로 1차 56종의 간이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나아가,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245종의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식품안전성 감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전주시는 올해 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먹거리전략인 전주푸드 플랜 시행 3년차를 맞아 학교급식, 공공급식 지원에 집중키로 했다.

이들 뒷받침하기 위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조직 내 기획생산팀을 설치해 계획생산부터 새로운 농가 품목 발굴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어 "전주시 188개 초·중·고교 중 현재 친환경농산물을 제공받고 있는 학교가 120여개 학교로, 향후 120개 학교 이상은 친환경농산물인 전주푸드를 학교급식용으로 공급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로 기획생산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조직 내 기획생산팀을 설치해 계획생산부터 새로운 농가 품목 발굴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어 "전주시 188개 초·중·고교 중 현재 친환경농산물을 제공받고 있는 학교가 120여개 학교로, 향후 120개 학교 이상은 친환경농산물인 전주푸드를 학교급식용으로 공급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중고차 6대 훔친 딜러 구속영장

중고차 6대 훔친 중고차 딜러가 경찰에 붙잡혔다.

덕진경찰서는 30일 절도 등 혐의로 A(50,남)씨를 붙잡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전주시 여의동에 한 중고차매매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열쇠를 훔쳐 6회에 걸쳐 5,650만원 상당의 차량 6대를 훔쳤다.

또한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4회에 걸쳐 차량 4대의 판매대금인 2,443만원을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범행은 업체 사장인 B(45)씨가 A씨의 범행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도박자금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상민 기자

여성폭행혐의 김광수 의원 '혐의 없음' 처분

경찰,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 의원과 A씨 진술 일치·물적 증거 없었다"

여성폭행혐의를 받고 있던 국민의당 김광수(59·전주갑)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30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폭행 혐의로 입건된 김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44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A(51,여)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었다.

"남녀가 시끄럽게 싸우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원룸에 김 의원과 A씨가 있었고 혈흔과 흉기를 발견한 뒤 김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인근 지구대로 연행했다.

조사과정에서 김 의원이 현지 국회 의원인 것으로 확인하고 엄지손가락에 출혈이 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다.

이후 김 의원은 사전 당일 미국으로 출국해, 사진 발생 10일 후인 지난 14일 완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조사에서 김 의원은 "자해하려던 A씨를 막기 위해 말리다 상처를 입었다"며 "폭행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A씨는 과거 같은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동료"라며 "불길한 예감이 들어 집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또한 A씨도 "폭행은 없었다"며 "김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룸 공간에서 있었던 일로 폭행 혐의점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폭행이 없었다는 김 의원과 A씨의 진술이 일치하고 물적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기자

상습 폭력·폭언 갑질 선장 불구속 입건

3년간 소속 선원 4명에게

갑질 논란이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선장이 수년간 선원을 폭행한 사실이 해경 수사에서 드러났다.

군산해양경찰서는 30일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소속 선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상습상해)로 9.7급 형망어선 선장 김씨(55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 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새우나 키조개 등을 잡는 어선(평균 5~6명 승선)의 선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선원에 대해 폭언을 일삼으며 둔기 등을 사용해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A씨(66)의 경우 2014년 4

월경 선장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땅치와 연장으로 폭행을 가해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등 2015년 2월경 선원 B씨에게는 쇠파이프를 휘둘러 오른쪽 팔뚝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외에 지난 4월경 선원 C씨가 인권 모욕적인 발언과 노동 대우 개선에 대해 항변하자 손과 발로 망어선 선장 김씨(55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폭행과 상해 등 동종 전과가 5명인 피의자 김씨는 지난 3년간 소속 선원 4명에게 폭언과 무차별 폭행을 서슴없이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피의자 김씨에 대해 보강조사가 끝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군산=장현 기자

가을배추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전주시, 9월 22일까지 접수

전주시가 가을배추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농산물 거래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30일 전주시는 가을배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노지 원예농산물 시장가격이 도가 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을 90%까지 농가

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주시에서 거주하고 전주 소재 농지에 1,000~1만㎡ 가을배추 경작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으로, 통합마케팅전문조직인 전주시조합공동법인에 출하약정을 이행한 경우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22일까지이며,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하약정을 한 후 농지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접수하면 된다. /안재용 기자

전주시의회, 인후3동 주민센터 매입부지 현장점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30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계획 변경과 관련한 사전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위원회는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되는 제344회 임시회를 앞두고 인후3동 주민센터 조성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민 이용 편의성, 건물 공간 효율성, 예산 절감 효과 등을 점검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초 인후3동 주민센터 신축을 계획했던 예정부지의 소유자가 매도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대체부지 매입을 통한 리모델링 공사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또한 위원회는 지난 6월 제341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창영 드림스퀘어 프로젝트 부지매입, 전주 청년

상상놀이터 구축 위한 부지교환, 전통한지 제조 시설 조성) 재검토하기 위한 간담회도 개최했다. /안재용 기자

덕진서, 전직원 대상 인권교육

덕진경찰서는 30일 5층 강당에서 경찰서장, 각과장, 계장, 지구대 파출소장을 포함해 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피해자지원협회의 김소과 교수를 초청해 '경찰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경찰의 업무수행과 인권을 사례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김소과 교수와 함께 초청된 송경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은 젠더폭력 근절 및 성매매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성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을 부탁했다. /이상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